



LIVING AND ENVIRONMENT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삶

<매거진 N>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탐색하는 라이프스타일 계간지입니다. 우리는 쾌적한 일상의 가치를 탐구하고, 다양한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그리고 소중한 지구환경 그 이상의 이야기를 유연하고 담백하게 풀어냅니다. <매거진 N>은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이 함께 만들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홀로 걷되 같이 걷고, 같이 걷되 혼자 걷는다.



Letter from N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관계에서 많은 것을 빌리고 이를 성장시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은 물론 생활환경이나 도시,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다시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최근 몇 년 사이 ‘함께’보다 ‘혼자’가 덜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다가가서고 물러서기를 반복하며 꾸준히 함께 나아갑니다.

<매거진 N> 이번호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더 많은 이가 공감하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은 단순히 성장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 같은 어려운 단어는 잠시 내려놓아요.

누군가에게 물려줄 이 세상을 위해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한 마음을 갖는 것,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서로의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Contents

ESG가 중요해진 지금, 각 기업은
어떻게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할까?
-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김민석 박사



08



18

식물을 통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을 넘어
숨결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브라더스키퍼의 형제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시민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몫이다.
- 수필가 신미경



26



42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행복해질 기회는 어디에나 있죠.

온 가족이 따뜻한 잠자리로
숙 들어가서 이야기꽃을 피워요.
- 밀키베이비 김우영 작가



58

Insight ESG, 기업을 향한 정언명령	08
Change Maker 창을 열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도록, 브라더스키퍼의 형제들	18
Living City 내일을 더 사랑하는 도시, 류블랴나	26
Living Home 가족은 힘이 세다	35
Mind 마음을 나누는 시간	42
N. Lab 생활환경 실천 연구소	46
Test 북극곰의 집, 빙하를 찾아주세요!	47
Item 숙면을 부르는 하늘명 아이템	48
Idea 미세먼지가 바꾼 주거 트렌드 리포트	52
To Do 주방 음식 냄새에 안녕을 고하다	54
Dictionary 쌀쌀한 가을밤을 준비하는 알쏭달쏭 난방 사전	56
N. Toon 엄마,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꿴어요!	58
Review 푸른 하늘을 꿈꾸며 시를 썼어요	60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코로나19와 ESG다.

ESG

기업을 향한 정언명령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투자자와 기업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으나 이제는 공공과 비영리단체, 스타트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ESG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 김민석 박사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윤리준법경영인증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학교 겸임교수

Insight

기업의 존재 이유=이윤 창출, 이제는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필자가 학교에 다닐 때 단골 시험 문제 중 하나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OOOO이다’였고, 빈칸에 알맞은 정답은 ‘이윤 추구’ 또는 ‘이익 창출’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기업을 이윤을 얻기 위한 조직,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배워왔다. 기업의 정의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외웠고, 답을 적었으며, 정답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기업은 정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일까? 2019년 8월 19일, 미국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다. 미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Business Roundtable)에서 JP모건, 아마존, 애플, 존슨앤드존슨 등 거대 기업의 CEO 181명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을 바꾸겠다는 내용에 서명한 것이다. 이 모임은 1997년에 기업은 주주를 우선하며, 주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정한 이후 이 원칙을 준수해왔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2019년에는 더 이상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체가 아닌 임직원, 지역사회, 협력 업체, 고객 및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기업의 존재 이유를 고쳐 써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기업을 자동차에 비유하곤 한다.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지까지 사람이나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료를 채우는 것이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각 기업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다. 에너지, 제약, 교육 등 각 기업마다 업종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다.



확인하는 지표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참고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야기하는 환경 이슈나 아동노동 착취, 갑질 문제 등이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ESG는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Kofi Annan)과 주요 연기금 기관장들이 모여 “투자자는 피투자 기업에 대한 재무적 정보 외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같은 비재무적 정보도 고려하는 책임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정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03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회의에서, 2004년과 2005년에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국제금융공사, 스위스 정부 등이 함께 진행한 ‘Who Cares Wins’ 회의에서도 ESG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지만, ESG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왜 갑자기 ESG가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을까? 이는 투자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기관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urence Fink) 회장은 2012년부터 매년 투자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연례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 2020년 1월에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었다. 그는 편지에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장기 투자 리스크’라고 밝히며, 기후 위기를 앞세운 ESG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래리 핑크 회장은 고객, 즉 투자자에게

ESG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는 ESG라는 단어도 자주 듣는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뜻의 영어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용어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왜 갑자기 ESG가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을까?



“지속 가능성을 모든 투자 방식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투자 기관의 수장이 최우선 순위로 지속 가능성을 지목하자 시장에 큰 반향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ESG 경영을 선언하는 기업, 엄중한 책임도 따른다

최근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재무적 영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이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투자자의 요구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환경보호에 쏟는 노력, 사회에 대한 관심, 건강한 지배 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 조건으로 회사의 존망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과연 ESG 경영은 기업에 좋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ESG 경영은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건강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기업은 많은 인원과 자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기업이 ESG 경영을 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ESG 경영을 흉내내 내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일명 ‘ESG의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ESG 경영을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기업은 ESG의 배신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많은 돈이 들더라도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고, 임직원을 중대 재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협력 업체에 갑질하는 대신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거수기로 폄하되었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의사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해야 한다. 경영진과 사원의 급여 차이, 법을 위반한 사례 등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재발을 방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이러한 이행 범위와 책임까지도 인지하고 ESG 경영을 신중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우리를 만든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일명 리우회의, 지구정상회의라 불리는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당시 열두 살이던 세번 컬리스스즈키 Severn Cullis-Suzuki는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당신들은 파괴된 오존층과 멸종된 동물을 되돌리고, 사막화되어가는 아마존의 파괴된 열대우림을 되돌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방법을 알고 있지 않다면, 부디 제발 파괴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학교와 유치원에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탐욕스러워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쩌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까? 저의 아버지는 항상 말합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단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그 말과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어린 소녀의 연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어른들을 6분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책임진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책임지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며,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동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활동은 삶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숭고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멋진 일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주저하게 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에 관한 결과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때도 있다. 예전에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각자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ESG와 같은 다양한 기준이 생겨났다. 최근 많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환경운동가 폴 호켄 Paul Hawken은 “비즈니스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을 달리고 상상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생산과 소비,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노동, 환경 등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만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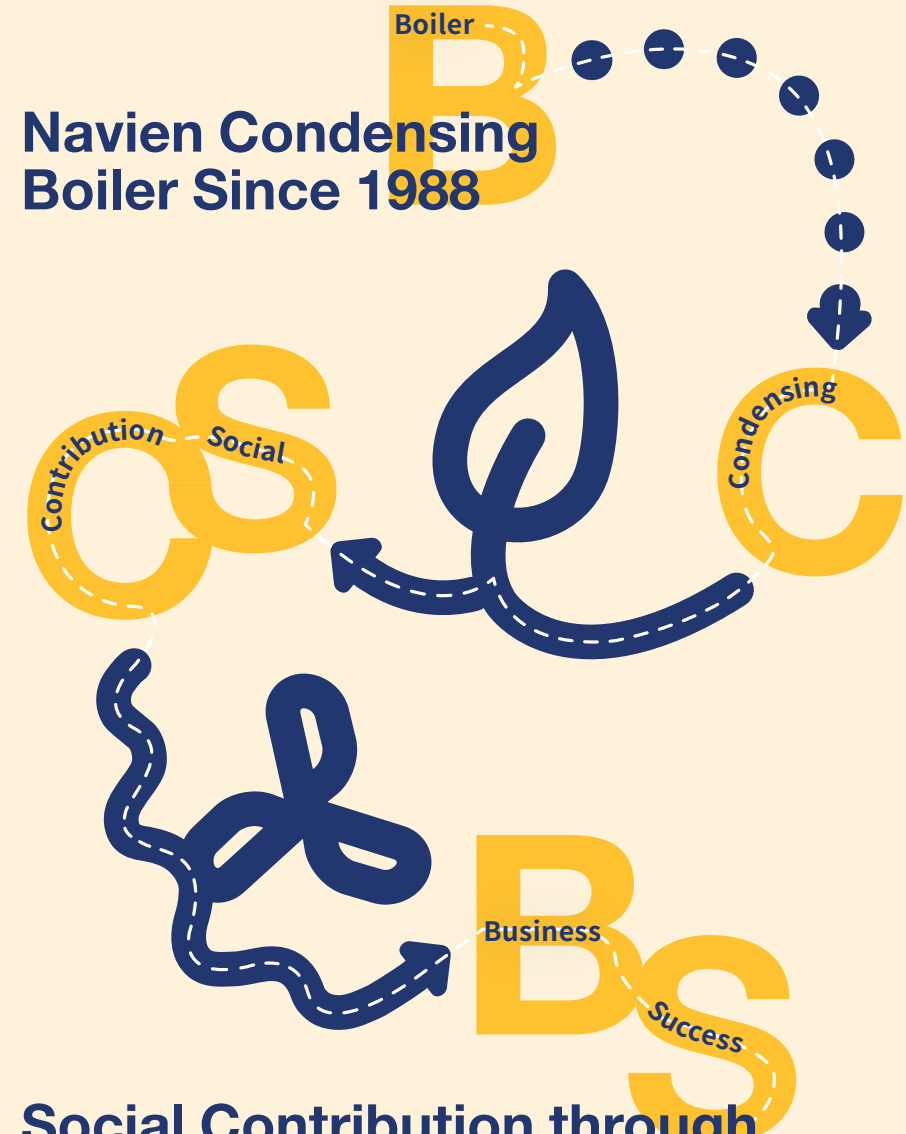


ESG 경영은 기업에 주어진 정언명령과 같다. 칸트철학에서 정언명령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요구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을 아직도 거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영국 금융가 조시아 찰스 스탬프 Josiah Charles Stamp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책임을 피하기는 쉽다. 그러나 책임을 피했다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콘덴싱으로 뚜벅뚜벅,

지구에 이로움 공존을 만들다



Navien Condensing Boiler Since 1988

Social Contribution through Business Success

누구도 환경문제에 주목하지 않던 1988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한 기업. 경동나비엔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콘덴싱 보일러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알리며 대중화에 앞장서왔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그 길에는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환기를 하고 싶어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창을 열 수 없는 날, 실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초록 식물입니다. 하지만 그저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과 식물이 서로 교감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질 컨설팅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형제들



치자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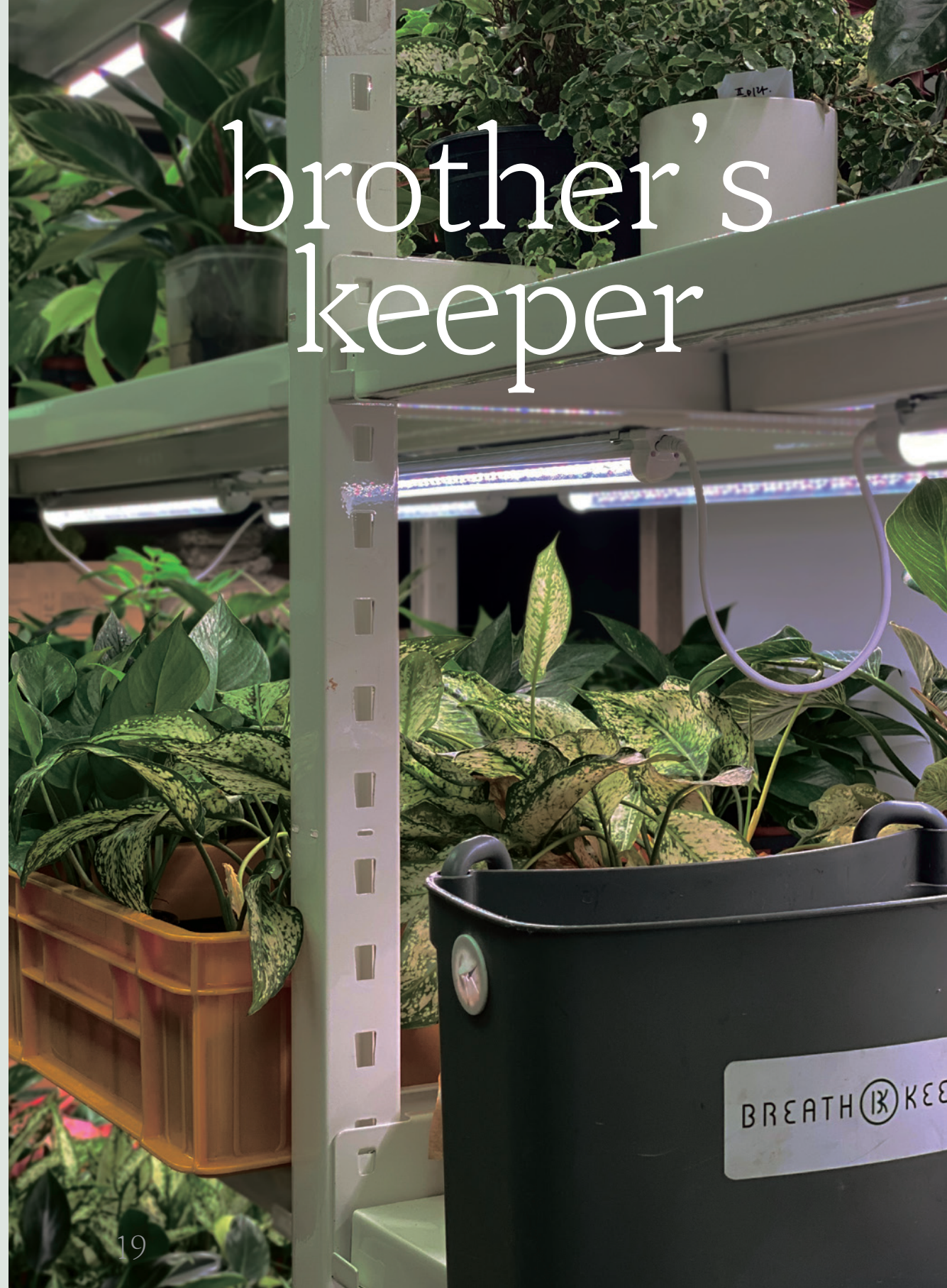
바비아나



이끼

글: 최혜진

Change Maker



brother's keeper

창을 열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도록

삭막한 도심의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식물을 통해 사람과 자연을 잇고, 우리가 마시는 숨결을 지켜낸다.
바비어나 김성민 대표와 이기 이요셉, 치자꽃 윤재근. 그 이름을 함께 불러본다.



브라더스키피어는 보호종료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인가요?

김성민 저희 회사에는 모두 10명의 직원이 있고,
그들 중 7명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이
홀로 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브라더스키피어는 그런 보호종료청년을 직원으로
채용해 그들이 스스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식물 이름으로 부르는 점이
참 독특했어요. 닉네임은 누가 짓는 건지 궁금해요.

김성민 브라더스키피어에 입사하면 본인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스스로 정해요. 제 닉네임은
'바비야나'입니다. 단란한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인 저도 보육원 출신이고,
우리 직원들도 자라는 동안 가정이 없었지요.
저 스스로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직원들에게
화목한 가정 역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요셉 저는 '이끼'입니다. '모성애'라는
꽃말을 가졌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후배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어요.

윤재근 저는 '한없는 즐거움'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 '치자꽃'입니다. 일과 일상에서
늘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거든요.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
식물을 활용한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업으로
삼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김성민 회사를 시작할 때는 교육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육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조정경 회사
대표님이 보호종료청년을 돕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 일시적 후원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두 사람의
일 자리를 제공해주셨어요. 그때 뿌리를 내린
직원이 바로 '이끼'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마음에 들어요.

김성민 대부분의 보호종료청년은 첫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라 선한 의도로 다가서도 좀처럼
마음을 열기가 힘들거든요. 회사에서 잘 챙기고
배려해주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나?'라며 괜히
의심하고, 일을 하다가 혼이 나면 '보육원
출신이라고 나를 막 대하는 건가?'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직이나 퇴사가 잦고요.
어느 날 제가 이끼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나,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매일 식물과 함께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이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요셉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초록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요.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도
저절로 회복되는 것 같고요.

식물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일, 보람이 클 것 같아요.

김성민 식물은 정서적 안정과 회복에 효과적이예요.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요. 마침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식물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해답이 될 거라 믿고 '브레스키피어'라는
브랜드로 식물을 활용한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윤재근 브라더스키피어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일에 치여서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한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왔거든요.
식물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삶의 질도 올라갔고요.
고객들에게도 저와 같은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요.

실내 공기질 컨설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김성민 공기질을 바꾸는 방법은 실내벽면녹화,
스칸디아모스, 식물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내벽면녹화는 삭막한
공간 벽면에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해 초록이 살아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저희는
물을 재활용하는 수경기술을 적용하고 일조량과
습도를 조절하는 센서를 달아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라고 관리하기 쉬워요.

스칸디아모스는 조금 생소하게 들려요.

김성민 이끼의 한 종류인데, 여기에 천연색소를
입혀 예술 작품처럼 디자인하는 걸 의미해요.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이로운 스칸디아모스로
계절의 변화에 맞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거죠.
이요셉 제 닉네임이 이끼라서가 아니라(웃음),
이끼는 습도 조절이나 공기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더울 때는 수분을 흡수하고 반대로
건조한 공간에서는 습기를 내뿜어주죠. 공기 중
미세먼지도 잘 빨아들이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공기질 개선이 필요해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을 조언해주세요.

김성민 맞아요. 넓은 공간과 작업 기술이 필요한
벽면녹화는 일반 가정에서 시도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계절에 맞는
꽃과 식물을 대여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요셉 가정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 중
제일 중요한 건 환기죠. 아침저녁으로 두 차례,
3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좋아요.
공간에 바람이 통해야 공기질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들인다면, 어떤 식물이 도움이 될까요?

윤재근 잎과 줄기 모양이 독특하고 미세먼지도
잘 흡수하는 파키라를 추천합니다. 건조하지
않게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요.

이요셉 공간의 목적과 기능에 어울리는
식물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주방은 요리할 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스킨답서스나 안스리움을 두면 좋습니다.

브라더스키피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윤재근 사람은 힘이 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저도 브라더스키피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요셉 형제를 지키는 사람을 넘어, 숨결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브레스키피가 다양한
식물을 기반으로 많은 이의 호흡을 24시간
책임질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려고 해요.

김성민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한 번은
혼자가 된다는 것. 저희는 혼자가 되는 경험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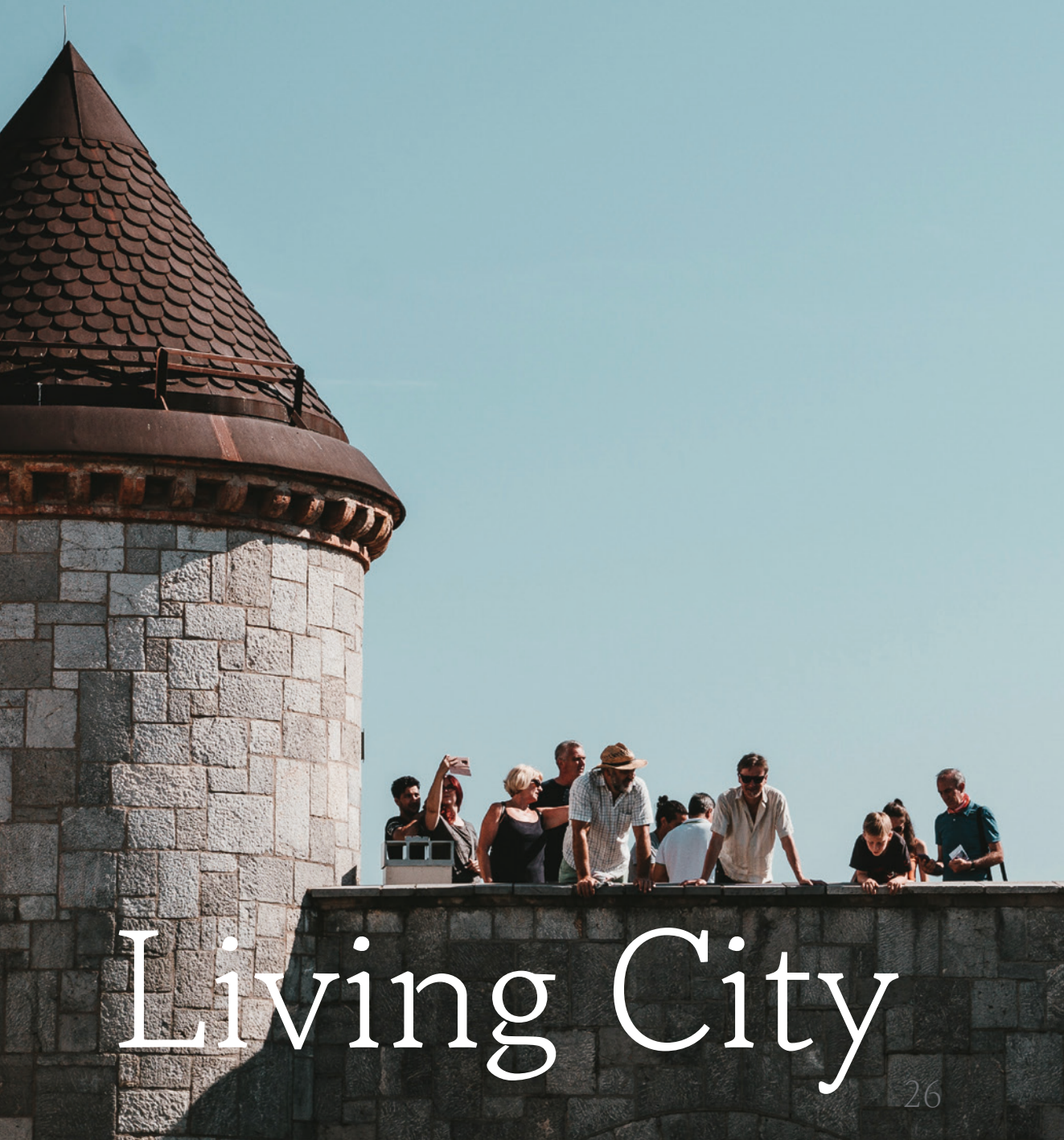


“보육원 출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조금씩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더 많은 청년이 브라더스키피라는
토양에서 삶을 꽃피우고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Ljubljana

류블라나의 쾌적한 오늘



Living City



글. 신미경

©www.visitljubljana.com

내일을 더 사랑하는 도시

**발칸반도 북쪽 끝에 위치한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서는
굳이 생수를 사 마실 필요가 없다.
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멀리 살고 계신 어머니가 로컬 푸드 마켓에서 국산 식물 수세미를 발견하고 택배로 보내주셨다. 딸의 착한 소비 생활을 돕기 위한 마음이었지만, 이때 발생한 탄소발자국(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무려 76킬로그램쯤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모르신다. 한때 나도 소프트(무환자나무 열매)를 세제 대신 사용한 적이 있다. 보다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소비하는 물건을 바꾸는 것만으로 진정한 지구 힙스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인간이 ‘멸종 위기종’이라는 불안감을 줄이려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이전에 가진 것을 최대한 오래 쓰고, 잘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쪽이 먼저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사람들은 이런 점에 통달했다. 이 도시에서는 부서지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물건을 재사용한다.



사랑이 넘치는 용의 도시

슬로베니아 수도이자 문화, 경제, 정치, 행정의 중심지인 류블랴나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되지 않는 27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 약 29만 명이 모여 사는 작고 소박한 도시다. 1998년 출간된 파올로 코엘료의 소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배경지로 등장해 매력을 뽐냈고, 한국에서는 ‘황혼 청춘’들의 인생 찬가를 그린 어느 드라마의 해외 촬영지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류블랴나는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작은 도시가 주는 여유로움과 대도시의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물가에 비해 음식도 맛있다. 강을 따라 이어진 도심에는 거리 음악가들의 공연이 끊이지 않고, 카페와 바에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넘쳐 흐른다. 도보로도 만나질, 천천히 쉬어 가도 하루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가지 상점에는 하트 모양 기념품이 많다. 그건 아마도 류블랴나라는 이름이 슬로베니아어로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 낭만적인 도시 곳곳에서는 사랑이 숨 쉰다. 그 예로 도시의 랜드마크인 프레세르노프 광장에 있는 슬로베니아 국민 시인 프란체 프레세렌(France Prešeren)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담은 조각상을 들 수 있다. 이 조각상의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집 창가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율리아 프리미츠(Julija Primic)라는 여인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 차이로 끝내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직도 두 사람은 서로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말을 남긴 그의 애절한 사랑은 가슴 절절한 수십 편의 시로 남았다. 또한 류블랴나는 용의 기운을 지닌 용맹한 도시이기도 하다. 전설에 따르면 그리스신화의 영웅 이아손이 아이에테스 왕에게서 황금 양털을 훔쳐 강을 따라 도피할 때 류블랴나 근처 호수에서 큰 괴물을 물리치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전설로 인해 사람들은 류블랴나를 이아손의 도시라 여긴다. 그때 이아손이 물리친 괴물은 류블랴나의 드래곤으로 불리며 이곳의 상징이 되었다. 류블랴나 시민들은 힘과 용기, 위대함을 지닌 용이 류블랴나성 꼭대기의 깃발에 영원히 살고 있다고 믿는다.



©Junja Wedam, Ljubljana Tourism Photo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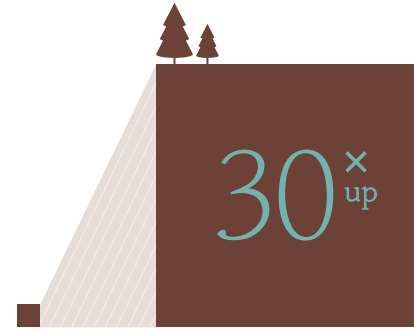
초록빛으로 삶의 터전을 정비하다

보이는 풍경마다 사방이 녹지로 가득한 도시, 류블라나는 온화한 기후와 류블라니차강이 흐르는 깨끗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온갖 푸르름이 가득한 이곳은 숲속에 지은 도시 느낌이 드는데, 꾸준한 친환경 정책과 지원은 도시를 점점 더 푸르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있다. 류블라나의 1인당 녹지 제공 면적은 서울시에 비해 30배가 넘는 놀라운 수준이다.

잘 보존된 자연은 환경 의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순환한다. 좋은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2007년 최초의 환경보호 프로그램과 함께 시작되었고, 수원 보호와 자급자족 식량 생산, 지속 가능한 생활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자연 상태의 녹지 자체를 보존하는 노력에서 그치지 않았다. 류블라나는 시민들이 편하게 걷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강과 도심 광장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새로 만들었다. 도시 공간을 푸르게 정비하자 침체했던 지역 상권이 살아났고, 도심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족한 활기 찬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런 정책과 노력 덕분에 시민들은 일상에서 녹색 생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자동차 천국에서 자전거 친화 도시로

불과 15년 전만 해도 슬로베니아는 자동차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혼잡한 국가였다. 한때 2인당 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승용차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공해 문제도 심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티 휠 City Whee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자전거 이용 권장 프로젝트는 서서히 도시 풍경을 바꿔놓았다. 류블라나 시내 곳곳에는 '비찌켈 Bicikelj'라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식당 할인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 2020년 봄, 자전거 친화 도시 류블라나의 면모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식을 뉴스로 접한 적이 있다. 슬로베니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수천 명의 류블라나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도심에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는 기사였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시위를 벌이는 그들을 보면서 류블라나 시민의 일상에서 자전거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 115개 도시의 자전거 환경 실태를 조사하는 '코펜하게나이즈 인덱스 Copenhagenize Index'에 따르면 류블라나는 2019년 자전거 친화 도시 14위에 꼽혔다.



서울 류블라나

서울의 1인당 녹지 제공 면적은 17.39제곱미터인 반면 류블라나는 542제곱미터에 달한다.

20%

자생림으로 덮인 언덕을 포함해 도시의 20퍼센트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유럽 녹색 수도 시상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도심 녹지, 교통, 환경 관리, 지속 가능성 등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도시 환경 정책을 평가해 한 해 동안 유럽을 이끈 환경 도시를 선정한다.



©AP/연합뉴스

대부분의 시민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지만, 도시 정책에 따라 오전 중 정해진 시간에는 생활 운송용 차량이 도시를 운행한다. 골프장 카트처럼 생긴 녹색 전기 차량인 '카바리르Kavalir'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 놀라운 점은 이용 요금이 전액 무료이고 정해진 노선도, 정거장도 없다는 것이다. 길을 걷다 지나가는 녹색 차가 보이면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들고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하면 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까

녹지로 둘러싸인 공간도 생활 부산물인 쓰레기로 가득하다면 의미 없을 터. 이에 류블라나는 유럽연합 수도 중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실천을 가장 먼저 약속하고 쓰레기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여 2016년 유럽 녹색 수도 시상식 European Green Capital Award*에서 유럽 최고의 친환경 수도로 선정되며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류블라나 시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고작 115킬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는 한 사람이 하루 약 1킬로그램을 배출하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양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도시의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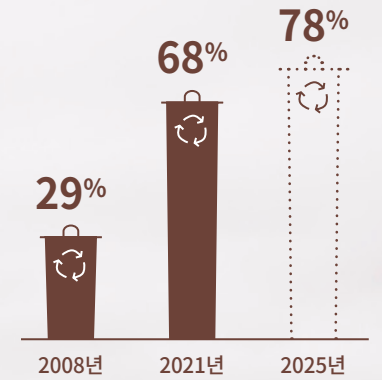
시작은 보통의 도시와 비슷했다. 2002년부터 거리에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해 종이와 유리 등을 분리수거했고, 2006년부터는 생분해 가능한 쓰레기를 따로 모았다. 2008년까지만 해도 류블랴나는 폐기물의 29.3퍼센트를 재활용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은 68퍼센트로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류블랴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5년까지 전체 쓰레기의 78퍼센트를 분리수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에는 도시의 모든 주택에 포장재와 종이 쓰레기를 모으기 위한 분리수거함을 지급했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자칫 불편할 수 있는 과감한 결정도 실행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류블랴나 의지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확고해졌다. 현재는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거주민이 쓰레기 배출량을 카드에 기록한 후 월별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일은 시민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몫이다. 따지고 보면 쓰임을 다해 폐기되어도 마땅한 물건은 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자원이기 때문이다. 전자 제품에는 값비싼 구리가 있고, 플라스틱은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다. 캔의 원료인 알루미늄은 말해 뭐 할까. 모두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물건 중 어떤 것도 완전한 폐기물은 없는 셈이다. 다만 그 쓰임을 하지 못하도록 섞어서 버릴 때 쓰레기가 될 뿐이다.

계속 함께 살아갈 이들을 위해

류블랴나의 상인들은 2019년부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분해 봉투와 친환경 포장재만 사용하고 있고,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소리를 내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나 물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일은 류블랴나에서 점차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교육도 활발하다. 매주 시민을 대상으로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새 물건이 오래된 중고품보다 좋다는 인식을 차근차근 바꿔 나가고 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소유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공유 문화도 일상이 됐다. 요즘은 아파트 주민끼리 자전거와 자동차를 함께 쓰는 경우도 흔하다. 한마음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풍부한 자연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류블랴나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오늘 하루 자신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계속 함께 살아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버리지 않음을 통해 푸른 자연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류블랴나 시민에게 그 방법을 전수받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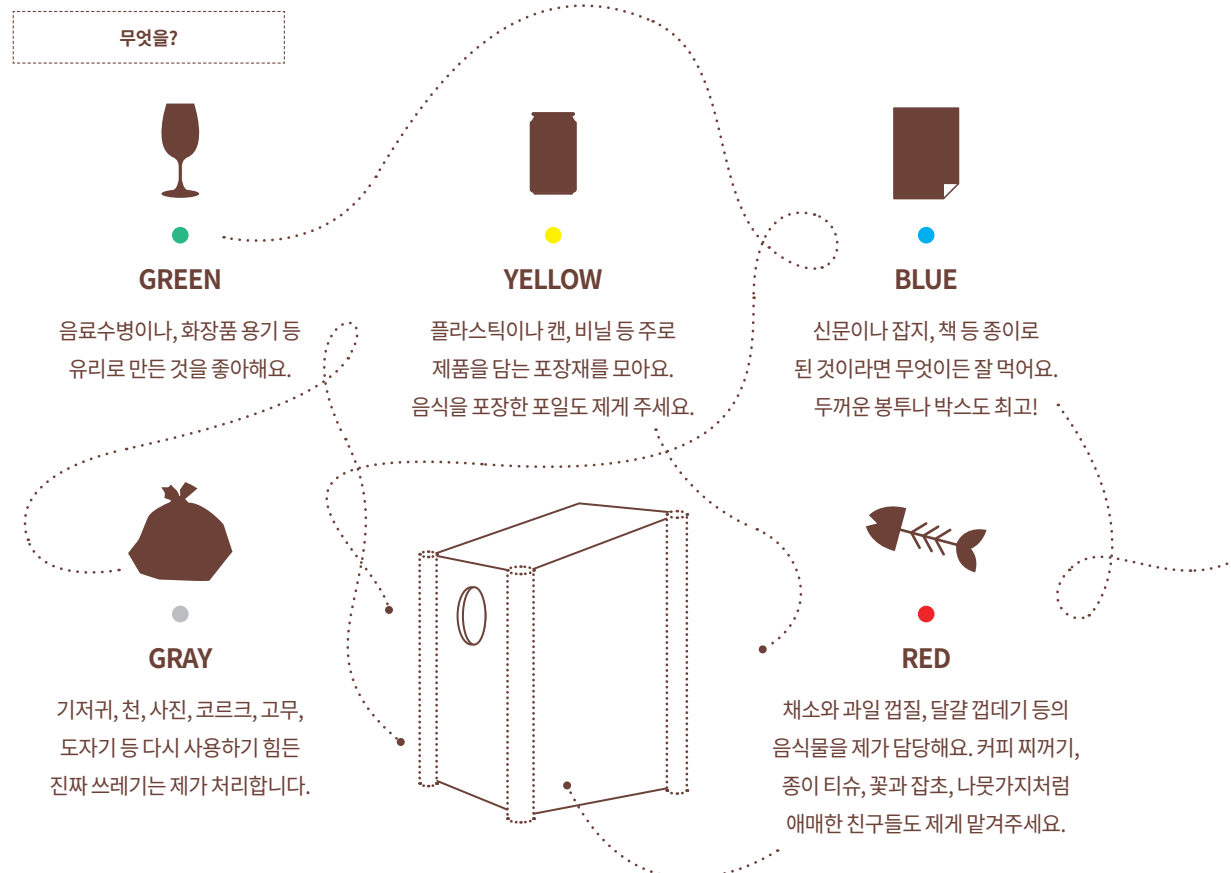
류블랴나의 쓰레기 분리수거 비율



UNDERGROUND COLLECTION UNITS



류블라나에서 약 150미터마다 마주치는 쓰레기통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땅속의 더 큰 저장고로 연결되는 총 72개의 분리수거 유닛은 어떻게 사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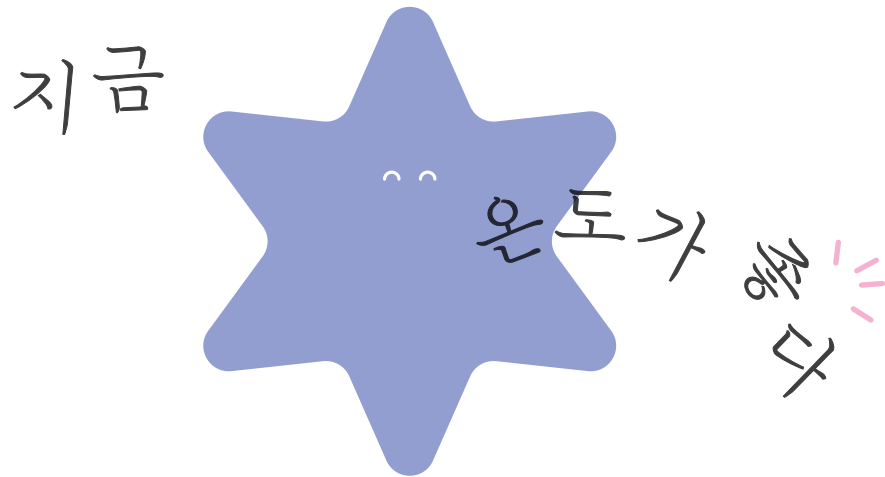
- 어떻게?**
- 수거함 뚜껑 옆 스캐너에 전용 카드를 놓아요. 카드는 모든 거주자에게 무료로 발급해요!
 - 스캐너가 카드를 인식해요.
 - 수거함의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요.
 - 버리는 물건을 담은 봉투를 넣습니다. 한 번에 최대 40리터까지 넣을 수 있어요!
 - 뚜껑은 수동으로 직접 닫아요.
 - 다른 봉투가 더 있나요?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글. 신미경 수필가. 일상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을 즐긴다. 특히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 여러 시장과 농장을 섭렵하며 신선한 식량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다. 주요 저서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혼자의 가정식>,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등이 있다.

삶은 모두 달라도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대상이다.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주고받지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큰 위로가 되는 버팀목과 같은 이들. 어쩌면 가족이란 두 글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먼 단어일지도 모른다. <매거진 N> 독자 에디터가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족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풀어낸다.



Living Home



한때 나는 뭐든 분석적으로 정의하는 걸 즐겼다. 가족을 말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이 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족을 만드는지 알아? 그게 생존하는 데 강력하기 때문이야. 자신을 보호하려면 자기 편이 필요한데, 가족만큼 완벽하고 편리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복지는 기혼자,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고 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가족이 내 노후를 책임져줄 안전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때의 난 아마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핏줄 사랑,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간섭과 책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가정 지킴이’를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늙고 성숙해졌다. 가족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속내에는 ‘생존의 이기심’ 외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

올해로 독립한 지 6년 차다. 많은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야 소중함을 알고 부모가 되어봐야 고마움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함께하는’ 소중함보다는 ‘혼자 누리는’ 행복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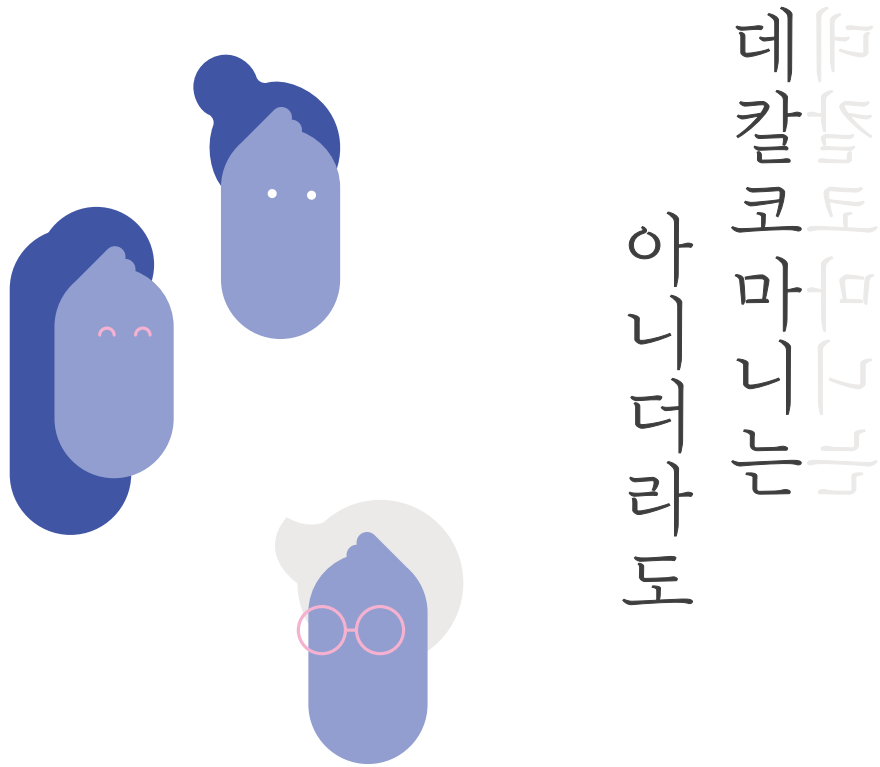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것,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란 말인가. 그 자유로움과 별개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반려동물이라 부르고 사실은 모시고 사는 고양이 두 마리 덕분이다.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드리고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루에 두 번은 놀아드린다. 외출이 길어지면 집에 있는 냥이님들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고, 여행은 1박 2일이 한계다. 내가 고양이 정도의 지능을 가졌던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나를 돌봤겠지. 자신의 자유 시간 대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의 옷과 장난감과 학원비를 위해 자신의 위시리스트를 포기하는 건 단순히 책임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가족은 첫사랑처럼 다가온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모두 서툴렀기에 사랑과 미움, 오해와 화해를 거듭하고 아련한 추억을 남기는 첫사랑. 그러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흔히 가족은 가장 든든한 내 편이라고 말한다. 가족이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최초의 지지대인 것은 맞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힘과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도 있다. 가족처럼 끈끈하진 않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가족은 미처 모르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며, 필요에 따라 행복과 도움을 기꺼이 나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적당히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도 꽤나 즐겁다.

독자 필진. 이한아

고양이 두 마리와 살고 있는 비혼 여성. 대학에서 글쓰기를 전공했고 브랜딩 관련 회사에서 1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흥미롭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필진 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전히 “그래도 나이 들면 가족이 필요해. 너도 가정을 이뤄야지”라는 걱정이 뒤따른다. 아마 내가 늙어서 경제적 능력도 없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욕실에서 넘어지면 구급차를 부르지도 못해 고독사할까 봐 걱정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자식 같은 고양이가 있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바람 쐬러 다니는 비혼 친구도 몇 명 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힘을 낸답니다.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으니 국가가 조금은 저를 책임져주겠죠. 그리고 넘어지면 119는 애플워치가 불러줄 거예요.



창궐한 역병 때문에 규제가 일상이 되었다.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면 관성처럼 매년 돌아오는 일에서 잠시 벗어난 것이다. 이를테면 명절에 친인척들과 만나야만 하는 번거로움 같은 것.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손아랫사람 신분에서 탈출하지 못한 나로서는 최근 몇 년간 명절을 편안하게 잘 보냈다.

사실 나는 아내의 오빠인 형님 집에 가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다. 정작 긴장하는 사람은 매번 아내였다. 아내는 형님을 어려워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꽤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형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기억이 드물었다. 반면 멀리 떨어져 사는 언니와는 각별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언니 집을 별장처럼 여기며 수시로 들락거렸으니까. 처형 역시 형님과 거리가 있었다. 처형이 봉화 산골로 귀촌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형님은 지금까지 단 두 번 처형 집을 찾았을 뿐이다. “우리는 그냥 안 맞아요” 처형이 수차례 털어놓은 이유는 그것뿐이었다.

처형을 처음 봤을 때 아내와 큰 키를 빼고는 비슷한 부분이 없어서 내심 놀랐었다. 형님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였다. 마른 체형이 유일하게 닮은 점이였다. 세 사람이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달까.

외모뿐 아니라 성격 또한 제각각이다. 첫째인 형님은 섭섭하다 싶을 정도로 냉철한 성격이지만, 그래서인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쿨한 사람이다. 둘째인 처형은 이상을 좇는 타입이다. 그래서 과감히 도시 생활을 접고 깊은 산골로 귀촌할 수 있었다. 막내인 아내는 늘 밝고 긍정적이지만, 인내심이 부족하다. 함께 사는 내게 아내의 밝은 면은 축복이지만, 조급한 성격... 여기까지. 세 남매는 이렇게나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얼마 전 목은 집들이를 핑계로 세 사람이 우리 집에 모였다. 외모, 성격 모두 다른 세 남매가 둘러앉아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다. 전에 없는 수다였다. 나는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는 일에만 몰두했다. 형님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처형네 일을 내 일처럼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형님보다 이 자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자, 여려모로 닮지 않은 세 사람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더 신기하게 여겨졌다.

독자 필진. 이태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서울 토박이. 국적 불문, 장르 불문 아주 오래된 고전영화를 좋아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과 홍콩의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이 웃음을 터트렸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동시에 파안대소하는 세 남매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분명 달랐는데 참 닮아 있었다. 들쭉 짝지어 비교하면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었던 세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함께 웃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난 건 나였다. 조용히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눕자 방문 너머로 세 남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함께 웃는 세 사람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웃음소리 앞에서 목은 애중 따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나 닮은 세 사람은 가족이니까.

친정의



재발견

결혼 전까지 내게 '우리 가족'이란 아빠와 엄마, 남동생이었다. 지금은 남편과 아이로 바뀌었다.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던 이들은 이제 '친정 식구'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족일 때는 몰랐던 그들의 새로운 모습이 요즘 자꾸 보인다.

우선 피를 나눈 남동생. 과거의 그는 '호적 메이트'라는 말이 어울린다. 청소년 시절까지 동생은 오리지널 날라리였다. 그저 노는 데에만 열심이고 집안의 어떤 일에도 크게 반응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전형적인 남동생. 집을 떠나면서도 내가 없으면 부모님과 동생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 다행히 동생은 하나 남은 자식이 되자 비로소 자신의 역할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부모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 신속하게 제보하는 스파이 노릇을 하기도 했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해서 예쁜 조카도 낳았다. 이제는 오히려 나보다 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다.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다.

엄마를 떠올려본다. 어린 시절 우리 남매에게 엄마는 거대한 불이었다. 그만큼 무서웠다. 엄마는 몸이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갔다. 사람이 아프면 기력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무서운 호랑이가 되어 돌아왔다.

내가 좀 컸을 무렵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엄마는 아빠와 함께 사업을 꾸렸고,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사춘기를 겪고 있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렇게 싸울 거면 왜 같이 사는 거야? 일은 왜 같이 해?"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두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는 중이다.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아빠와 늘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다. 몸이 아플 때도 우리를 최우선으로 보살폈고, 아빠의 알미운 행동도 아마 열 번 중 여덟 번은 그냥 참았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큰소리가 나야만 엄마를 바라보는 무심한 딸이었기에 늘 화가 나 있는 엄마의 모습만 기억했던 것 같다. 그 시절을 이해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언젠가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엄마에게 진심 가득 담긴 농담을 건넸다. "내가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아빠와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얼굴에 서서히 번지던 열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아빠 얘기도 지나칠 수 없다. 아빠는 든든하고 멋진 만능 가장이었다. 정말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전지적 유부녀 시점에서 살펴보니, 사실 아빠는 엄마보다 더 예민하고 더 자주 토라지는 다루기 힘든 남자다. 언젠가 부모님이 크게 싸운 날 물어봤다. "아빠는 원래 이렇게 잘 빠지는 남자였어? 엄마한테 좀 잘해. 그리고 왜 요즘은 우리한테까지 빠지고 그러는 거야?" 아빠는 또 그 말이 서운해서 인상을 팍 쓰고 대답했다. "이제 너희 다 컸으니까 나도 좀 빠지고 싶다. 왜 안 돼? 그럼 안 돼?" 세계 한 방 맞은 느낌. 아빠도 많은 감정을 억눌렀겠지. 나 역시 남편과 아이에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아빠와 통화한다. 가끔 '빠짐 모드'일 때 아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른다. "왜? 뭐! 나 왜 빠졌냐고 물어보려고?" "아니,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이제는 친정 식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진 우리 가족의 새로운 발견. 어쩌면 그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바뀐 건 아닐까. 문득 그들이 발견한 나의 새로운 모습은 어떤지, 궁금한 밤이다.

독자 필진. 이혜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독자.
출산 전까지 편집자로
일했고, 육아를 시작하며
'경단녀'가 됐다.
아이와 함께 울고 웃는
육아맘의 행복한 일상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나눔이란 말을 좋아해요.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작은 두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반짝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Mind





옥상 텃밭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푸른 채소가
오늘 저녁 이웃의 식탁에 올라가는 순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들고 거친 숨을 내쉴 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바닥으로 똑 떨어지는 그 찰나.



각자의 생존을 위한 삶 속에도
때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깃들었으면 해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행복해질 기회는 어디에나 있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다 같이. 즐겁게.

청명한 가을 하늘이 더없이 소중한 느껴지는 요즘,
미세먼지는 줄이고 수면의 질은 높이는 건강한 생활 노하우를 소개한다.

생활환경 실천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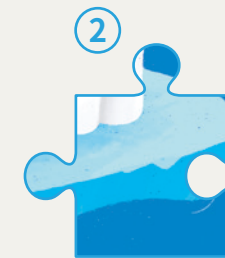
N. Lab



북극곰의 집, 빙하를 찾아주세요!

지구온난화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도 심해진답니다. 사라져가는 북극곰의 집을 찾아볼까요?

남은 조각은 딱 하나! 빈칸에 맞는 퍼즐을
맞추고 사라져가는 빙하를 지켜주세요.



Test

모두 성공했나요?
오늘부터 다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봐요.

속면을 부르는 하늘멍아이템

긴장을 풀어주고 푸른 하늘과도
잘 어울리는 생활 속 물건.

그 한잔이 꿀잠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냉장고 속 맥주가 쾌적한 하늘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면? 잠자기 전 가볍게 한잔 즐기는 이들의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다. 영국 맥주 브랜드 '브루독'은 마시면 마실수록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특별한 맥주. 브루독은 스코틀랜드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 나무가 브루독에서 맥주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의 2배를 흡수하게 된다. 브루독 맥주를 마시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넘어 마이너스 탄소가 된다는 뜻! 제조할 때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제품을 전기차로 운반하는 등 사소한 것까지 친환경적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이토록 착한 맥주라니. 꿀잠과 지구의 휴식을 위해서라면 배불러도 한 캔 더!



Item

피크닉 매트에 누워 놀멍쉬멍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한적한 장소에서 조용히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럴 때 널찍한 돛자리를 펴고 바람과 햇살을 이불 삼아 낮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컬러, 귀여운 무늬가 돋보이는 이 매트에는 탄생의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페트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페페트병으로 폴라텍스란 원단을 만들 수 있는데, 40여 개의 페트병이 모이면 매트 한 개가 완성된다. 기능도 훌륭하다. 4인 가족까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에 양면 모두 방수되기 때문에 오염 걱정도 한결 덜 수 있다. 들들 말아 제품에 붙어 있는 고무 밴드에 끼워 넣으면 피크닉 준비 완료! 이제 매트 위에 누워서 달콤한 잠에 스르르 빠져볼까나.



나무가 들려주는 자연스러운 멜로디

일요일 오후 4시,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다 잠들기 딱 좋은 시간. 이 분위기에 나른한 음악까지 더하면 완벽하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아 열심히 휴대폰과 연결했는데, 뽀로롱.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 스피커가 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 우리에게 무전력 우드 스피커가 있으니까. 사용법은 간단하다. 음악을 틀고 휴대폰을 스피커 안에 쏙 넣으면 끝! 둥글게 구멍을 파낸 안쪽에 있는 황동이 소리의 울림을 더 크고 선명하게 전달해주는 원리다. 전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들이나 캠핑 갈 때도 이 스피커 하나만 챙기면 된다. 좋아하는 음악과 속면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메시지 알림은 잠시 꺼두자. 나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마음에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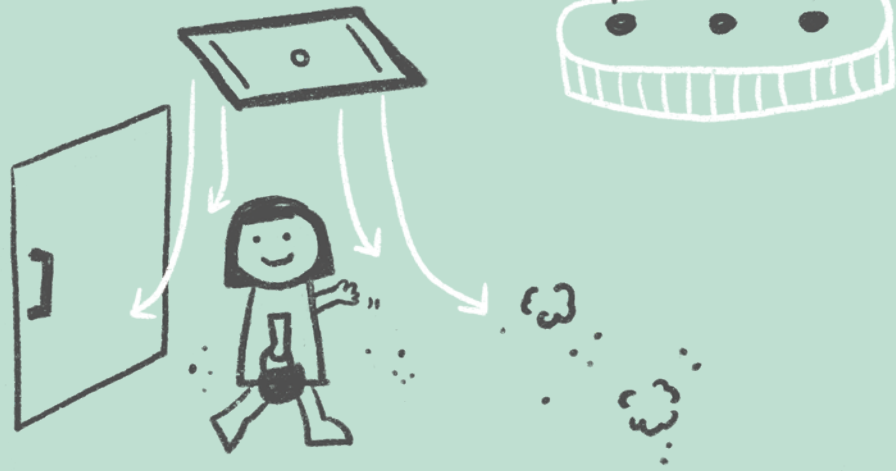
생각을 로그아웃하고 싶다면 여기에 앉아요

일교차 때문인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에 뒤척이게 된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몸까지 피곤하다. 사고의 일시 정지가 필요한 어느 날 오후,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디어디어'의 접이식 의자는 가볍게 한 번만 펼치면 언제 어디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캠핑용 의자라고 해서 불편할 거란 편견은 금물! 성인 남자도 거뜰하게 받쳐주는 튼튼한 원단과 프레임 구조 덕에 오래 앉아 있어도 안락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탄생한 브랜드답게 수익금의 일부는 환경보호에 쓰인다고 하니 마음 역시 편해진다. 따뜻한 색의 우드 의자에 앉아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 무거웠던 생각도 두둥실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다. 비타민 D 합성은 덤. 웬지 오늘 밤은 폭 잘 수 있을 듯.



미세먼지가 바꾼 주거 트렌드 리포트

실내 공기질이 중요해진 요즘, 난방과 주거를 선택할 때도 신념 있는 소비생활이 주목받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나의 홈 스위트 홈

사람마다 원하는 집이 다르지만, 요즘은 바이러스와 공기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집이 이상적 주거 공간으로 떠올랐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에어솔루션 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그 때문. 에어솔루션 아파트의 공기질 관리는 공간에 따라 역할이 나뉜다. 단지 내 미세먼지 농도는 안개형 분수가 낮추고, 집 현관에서는 에어샤워 시스템이 몸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털어낸다. 집 안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이 스스로 공기질을 파악해 쾌적한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한다. 요리할 때 생기는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시스템이 깔끔하게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이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나만의 공간에서 마음 놓고 숨을 들이마시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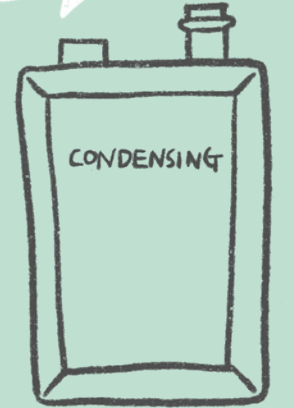


Idea



지구와 우리집을 보필하는 필*환경 보일러

최근 몇 년 사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물건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난방과 온수를 책임지는 보일러도 친환경이 필수다. 오래된 보일러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키고 에너지 역시 크게 소모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콘덴싱 보일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훌륭한 해결사다. 배기가스의 열을 내보내지 않고 재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기 때문. 콘덴싱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히 집 안을 따뜻하게 해 난방비도 아낄 수 있다.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쾌적하게 바꿔가고 있다. 사소하지만 신념 있는 행동이 모이고 모인다면 더 청정한 자연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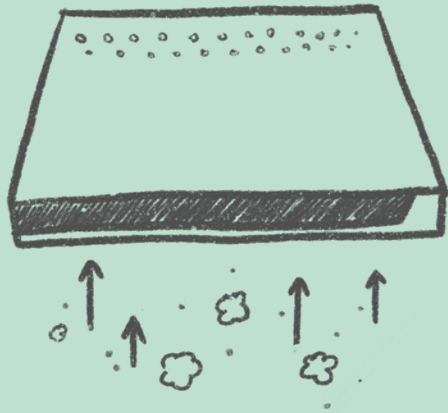


↓ NOx ↓
↓ 미세먼지 ↓



주방 음식 냄새에 안녕을 고하다

주방을 제때 환기하지 않으면 요리할 때 뱀 냄새 때문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음식 냄새는 물론 건강에 해로운
나쁜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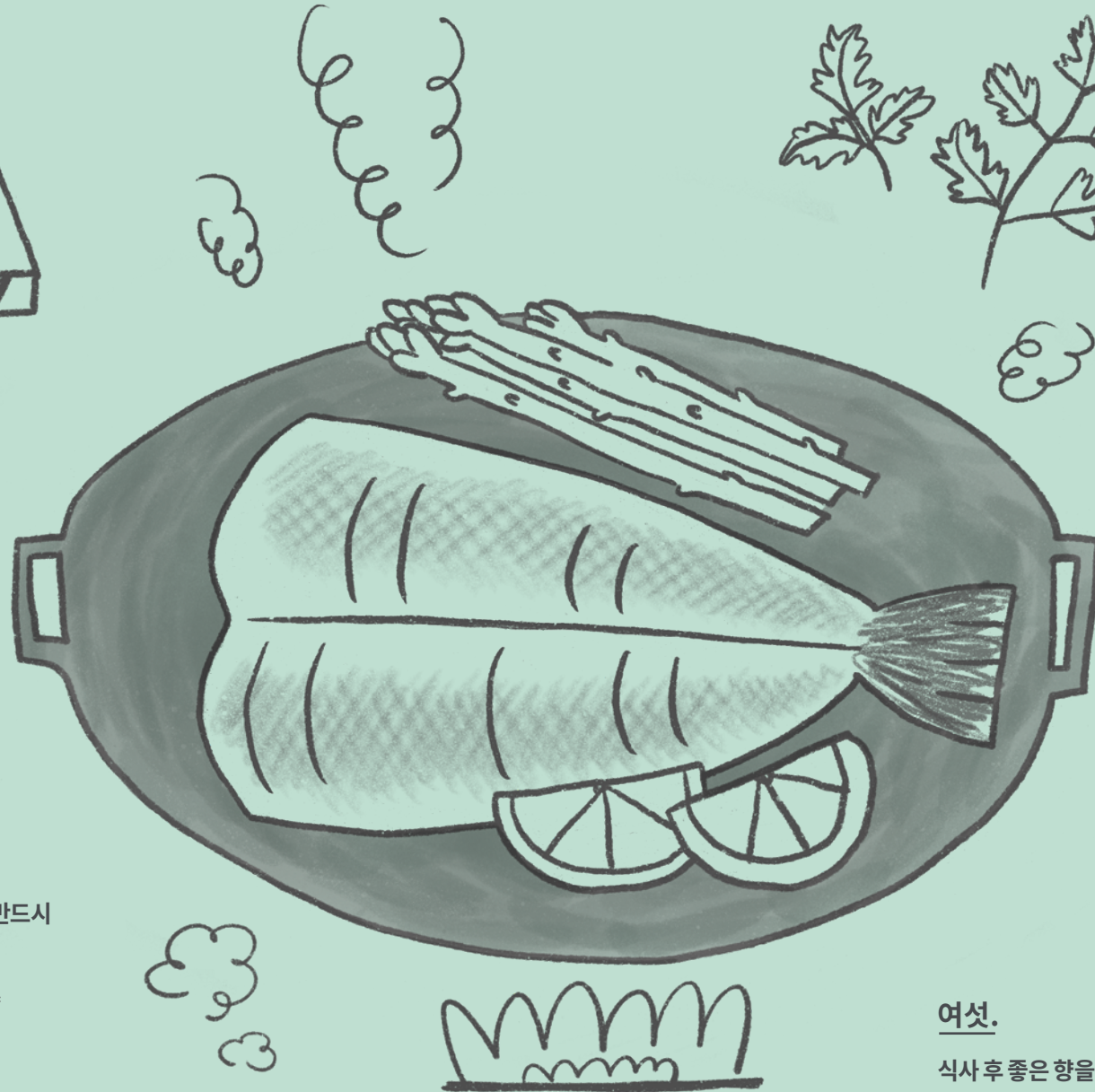
하나.

요리하기 전후에는 방문과 창을 활짝
열고 10분 정도 환기해주세요.
자연 환기가 어렵다면 환기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둘.

구이와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레인지 후드 작동하기!

* 주기적으로 후드를 닦고 기름때를 지워줘야
효과가 쑥쑥~ 올라가요.



셋.

기름으로 조리하는 음식에 허브를
넣으면 맛과 향이 풍부해지는 건 물론
남아 있는 냄새도 잡아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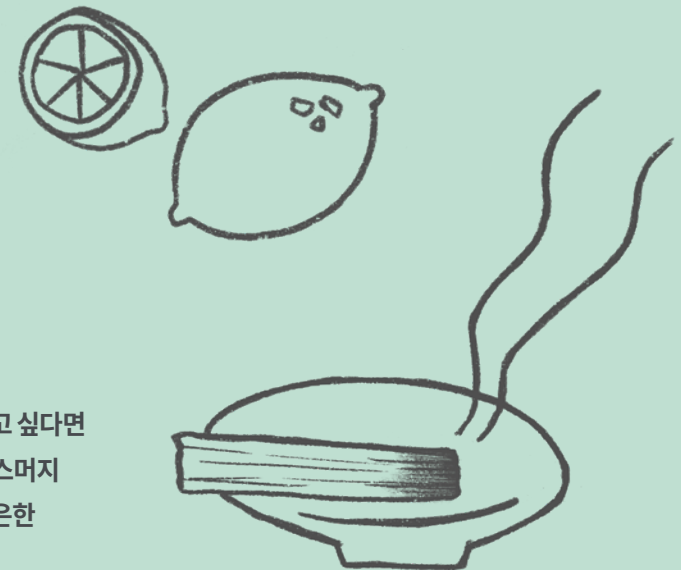
넷.

냉장고 속 식재료가 뒤섞이면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 유통기한을 숙지하고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냄새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상큼한 레몬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면
천연 탈취제 효과가 있어요. 수증기가
집 안 곳곳에 퍼져 남아있는 냄새를
없애주거든요. 레몬이 없다면 식초도 OK!



여섯.

식사 후 좋은 향을 더하고 싶다면
화학 물질이 없는 천연 스머지
스틱을 피워보세요. 은은한
나무 향이 맴돈답니다.



To Do

나는 우리집 난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집집마다 다른 난방 방식과 보일러 용어들!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배워보자. 추운 계절에 보다 효율적인 난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쌀쌀한 가을밤을 준비하는 알쏭달쏭 난방 사전

우리집 난방은 어떤 방식일까?

개별난방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말 그대로 개별 가구에 보일러를 설치해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난방 방식. 주로 도시가스나 LPG 등의 원료로 가동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있다.

-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온도로 사용 가능해요!
- 😞 설치 공간, 별도의 관리나 점검도 필요해요.

. 개인 가구 .



개별 보일러



중앙난방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책임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별도로 대형 보일러실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난방 방식.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최근 짓는 신규 주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관리하기 쉽고, 난방비가 저렴해요.
- 😞 원하는 온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대형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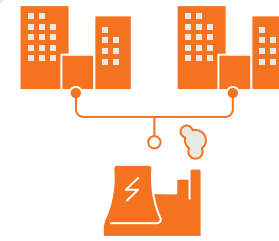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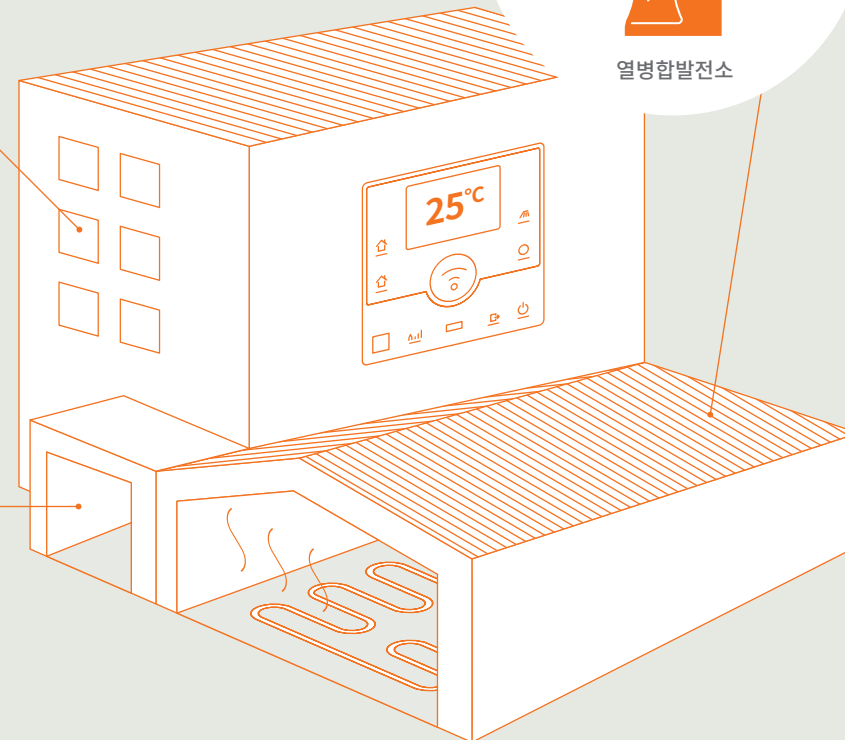
열병합발전소에서 데운 난방수를 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급해 온수와 난방을 해결하는 방식. 주로 신도시나 대규모 주거 단지에서 사용한다.

- 😊 건물, 개별 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 😞 여름과 가을철에 난방을 공급하지 못해요.

. 신도시, 대규모 주거 단지 .



열병합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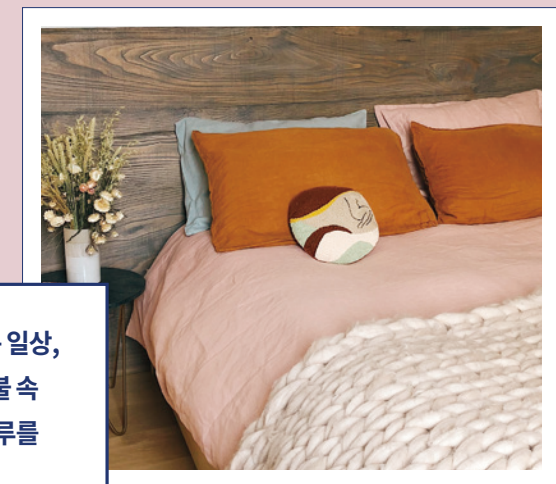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보일러 용어

- **BLDC 모터**[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
항공기에 사용하는 고급 사양의 모터. 보일러 소음을 줄여준다.
- **동파**[凍破]
날이 추우면 보일러 배관을 흐르는 난방수가 얼어버리는 현상. 방치하면 부피가 팽창해 배관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배관 단열과 동파 방지 시스템으로 예방 가능하다.
- **물 보충**[Water Makeup]
보일러 내부에서 기화해 부족해지는 난방수를 일정 기간마다 채워주는 일. 물 보충 알림이 자주 뜰 경우 센서 오류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바이패스**[Bypass]
집 안 배관 구조와 난방 온도에 따라 적당한 난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배관 파손, 누수를 방지해주는 쾌적 난방 시스템.
- **열교환기**[Heat Exchanger]
보일러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ALL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는 침식과 부식에 강해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잔고장도 적다.
- **콘덴싱**[Condensing]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의 열을 모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기술. 일반 보일러에 비해 가스비를 최대 28.4퍼센트 아낄 수 있다.

건강한 잠을 부르는 따뜻한 이야기.
 밀키베이비 김우영 작가의 가을밤 일상을 들여다본다.

엄마,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꿴어요!



숙면으로 달라지는 일상,
 나에게 꼭 맞는 이불 속
 '온도'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매거진 N>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BETTER N' 캠페인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떠올리며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고운 시와 함께 가을 감성을 느껴보세요.

푸른 하늘을 꿈꾸며 시를 썼어요

...
@grace.42.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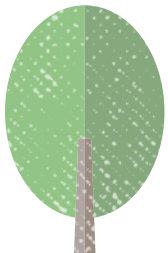
우리들 마음도 더 불어
동심동심 두동심 춤을 추지요

푸른 하늘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들 마음도 더 불어
동심동심 동그르르 아름답지요

그저 하늘은 하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푸른 하늘이면 내 기분도 덩달아 상쾌하고
탁한 하늘이면 내 마음이 가라앉는다
늘 머리 위에 지고 있는 하늘인데
소중하지 않을 리가

@bonbong_ss

지구 위 모든 존재를 품어주는 하늘인데
지구 반대편 이들에게
: 나무와 개미에게 소중하지 않을 리가
모두에게 푸른 하늘일 수 있도록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먼지를 걸어야 한다



Review



@hyun_activity

푸른 하늘처럼 푸르렀던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친구와 함께 그네에 앉아 푸른 하늘을 향해서
더 더 높게 발장구를 구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나 맑았던 하늘이 내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내 다음 세대도, 그다음 세대도
: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들의 해맑은 웃음만큼이나
맑고 푸르렀던 하늘이 함께 생각나길 바란다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감성 촉촉
시인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e_e_n_n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
그중 가장 좋아하는 하늘은
햇빛 따스한 하늘
구름 가득한 하늘
비오는 하늘



@snowharo_o

들꽃도 들풀도 나비도
푸른 하늘 아래에선 모두가 맑은 마음
: 누구 하나 예쁘지 않은 적 있던가
구름에 가려질 뿐
파랗게 깨끗한 마음은 언제나 거기 있네



A scenic landscape photograph showing two hikers with large backpacks walking across a grassy hill. The background features a range of rugged, snow-capped mountains under a hazy, golden sky. The foreground is filled with green grass and small white flowers, some of which are out of focus.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 걸으면 더 좋지요.

천천히 더 멀리 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내 손을 잡아요.
따로 또 같이,
우리 기쁜 오늘을 함께해요.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통권 제158호)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여의도동,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신관) (주)경동나비엔

담당

IMC팀 박은빈

기획·디자인

리틀바이리틀

사진

포토사위 현명진

일러스트레이션

Atelier Margie & susu

인쇄

(주)가나씨앤피

문의

02-3489-2489

팩스

02-3489-2296

홈페이지

www.kdnavien.co.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주)경동나비엔과 리틀바이리틀에 있습니다.
사진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동나비엔 소셜 미디어도
지금 방문해보세요!**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kd_navien

 페이스북
facebook.com/Navien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dnavien_official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이메일을 통해 소중한 독자 후기를 보내주세요.
무료 정기구독 신청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hello_n@kdiwin.com



NAVIENT
LIVING AND ENVIRONMENT

NAVIENT AIRONE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을 쾌적하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에어모니터 청정환기 유닛 에어 리콘트롤러

우리집에도 환기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기장치란 천장의 공기 통로와 디퓨저를 통해 실내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로,
2006년 이후 인허가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집 다용도실 등에 설치된 환기장치와 천장의 디퓨저를 확인해보세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공기청정으로 실내 내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 순환시켜 줍니다.
청정환기로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의 공기는
깨끗이 걸러서 들어옵니다.

Check Point!

- 청정 필터시스템 0.01µm 극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살균
- 에어모니터 실시간 실내 공기질 정보를 측정해,
공기질 변화를 한눈에 확인
- 자동모드 우리집 공기질 상태에 맞춰 최적의 모드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기질 관리

LIVING AND ENVIRONMENT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구독

우리 모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거진 N>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지구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